

첫 간호원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김 모 임

(분회회장, 국회의원)

우리 중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일기 시작한 것은 내 경험으로 비추어 약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는 국가수준의 옳은 보건정책이 없고 따라서 간호사업정책도 없는 상황에서 간호가 한 번도 바른 궤도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쓰라린 방황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바로 알리자는 노력은 간헐신보 창간으로 시작했고 1978년에 대한간호협회 장기간호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간호사업전달 및 행정체계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조직에 간호사업국, 병원에看護部, 그리고 발달 보건소에는 간호係 시설을 추진할 것과 이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적어도 1991년까지는 입법부에 우리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보내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준비된 자료를 기반으로 1981년에 간호사업추진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준비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심을 통감한다. 우리 계획보다 거의 10년이 당겨진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무대에 우리 사람을 보낼만큼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희생과 봉사엔 간호원은 걸어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왔다. 그렇기에 간호가 정치와 유관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연륜이 짧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랜 타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국회의원이 된 나도 이 타성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간호협회 장기발전계획 중 중요계획으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초를 닦고 정지하는 기능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은 그때의 사회나 정치풍토로 당연한 귀추임을 지금도 평가하고 있다.

역사의 한 층이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던들 10년이 당겨진 놀라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하느님의 섭리가 계셨음을 느끼게 된다. 즉, 간호원 중의 한 사람을 여성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써, 개혁을 주도할 당대의 발기인으로 세우셨다. 이 부름을 받고 일생을 학자로 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국회의원에 대한 대학의 생리인 “눈중”에 “소명”이란 의식으로 맞부딪히지 않았다면 진실로 피히브고 싶은 잔이었다. 지금도 내가 마실 잔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이 시대, 이 사회에 태어난 자, 또한 이러한 때 대한간호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에게 주어진 잔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조심하라는 경고속에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뎠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하느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나는 하느님 섭리의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민정당의 발기인이 되고 느낀 것은 많은 간호원이 정당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았다. 또한 세상이 혼란할 때 사심을 버리고 개인의 미래를 점치지 않고 미련없이 반클 순수해지는 일은 많은 고뇌와 진통이 필요로 됨을 알았다. 또한 주위에서는 정치에 불몰지 말라는 충고에서 부터, 정치인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정치인답게 행동을 하라는, 극과 극을 달리하는 조언, 충고, 건의, 의견들이 분분했다.

이때 나는 정당인으로 정책위원회에 참여, 국민보전 및 여성지위향상을 위하여 아는바 지식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으로만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왕에 정당인이 되었으면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므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위에서의 소망이 너무도 간절했다. 전국구후보로 추천장을 받던 날, 정치를 하고자 하지 않았던 나는 새시대, 새조국 건설을 위해 참신하고 정직하게 헌신하겠다는 참마음이 우리나라를 느꼈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강태에 대해 소망을 갖고 하느님의 섭리가 계속하기를 기구하는 마음이 었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간호원을 위해서.....

“복지사회와 간호”는 대한간호협회로서는 몇년 전부터의 총회주제이다. 전국의 지부총회를 돌며, “복지사회와 간호”에 대한 주제강연을 하였다. 많은 회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일부 간호학생은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으로 오해를 한 경우도 있다. 오비이락일 수도 있으나 나는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섭리된 일련의 사건으로 본다. 사건을 순수하게 보는 눈에 흑백이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밖에 없는 또하나의 일이 있다. 국회의원이 되어 첫 106회 국회는 원구성으로 끝나고 국정을 논의하는 107회 본회의의 대정부 질의자로 내가 선정되었으며 질의일자는 5월 12일로 정해졌다. 내가 의도적으로 5월 12일날 질의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우연으로 돌리기에 너무나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즉, 이날 나로 하여금 국민복지, 이중에서도 건강복지에 대해 질의를 하게 하고, 나이팅게일 탄신일이며 국제간호원의 날로써 여성이 주도하는 간호사업을 기리는 날임을 알리고 내가 간호원임을 알려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일들을 과연 우연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제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하여 간호를 높이들어 쓰시겠다는 하느님의 뜻임을 느끼며 이 뜻을 받들어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새삼 뼈저리게 느낀다. 보건진료원신설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라고 본다. 이 모든 변화를 간호사업의 발전으로 이끌고 나아가 효율적인 국민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변화와 사건에 우리는 긍정적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능력을 닦았는가? 각오는 서 있는가?

국회의원은 이러한 일을 위해 들어쓰시는 한 도구이기에 도구됨을 영광으로 알고, 도구로써의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도구가 도구됨에 있어 구실을 다할 수 있는 것도 나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기에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하느님의 지속적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